

Cover Story

인천
사회복지의
비전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2006여성정책워크숍
2006여성정책워크숍 인천발
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서
는 "양육지원정책의...

인천/나/들/이



변화하는 교육과 휴식의 場,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생각만 해도 났
새나고 지저분한 매립지가 인
천에 있다. 그것...



인천아프리에의 다섯번째
만남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사
무소가 무료급식시설로 활
용되고 있는 구월4동사무
소 윤...

시/정/연구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
책제언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

도/시/동/향



신이된 강, 갯지스
신이된 강, 갯지스 갯지
스강을...

신/간/소/개



중국 칭다오 벤치마킹보
고서
부산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I ID인/터/뷰

인천아프리에의 다섯번째 만남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사무소가 무료급식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구월4동사무소 윤태만동장에게 구월4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Q 무료급식시설로 활용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어떤 연유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윤태만동장

A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구월4동은 200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시하여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고 주민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선용 공간은 커녕 식사마저 해결치 못하는 가정이 늘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2000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1년부터 우리지역 현안사업인 무료급식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무료급식소의 실제적인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자

치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곳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A 주민자치센터는 한마디로 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일정지역주민들의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일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참여자치와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현재 구월4동에서는 종이접기, 어린이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한자교실, 생활체조, 바둑교실, 요가, 효실천 무료급식 등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무료급식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외에도 많은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다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A 물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구월4동 직원들은 급식소의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 급식자재의 수송 등 바쁜 일상업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월4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월4동 새마을부녀회, 모래내시장부녀회, 전 남동구 해병전우회 부녀회원들로 구성된 봉사회, 홍익문화연구학회 단학회원모임,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된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제가 구월4동장으로 발령받고 온 것은 2005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3회급식을 하면서 2번은 국수로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국수로 점심을 때우시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료급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개인 및 단체에서 쌀을 지원해주셔서 지금은 화요일과 수요일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개단체는 국수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 모든급식을 밥으로 해결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구월4동사무소의 무료급식소와 같은 봉사활동지원이 인천의 많은곳에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봉사활동 지원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시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주민자치센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봉사활동은 시청이나 구청 등 관에서 참여하는 것보단 개인이나 단체 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게되었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체험, 각종 시설이나 매장의 할인혜택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만동장님을 만난후, 무료급식소에 관한 정보를 얻고 무료급식소가 위치한 동사무소 3층으로 올라가 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중 하나인 새마을부녀회를 만나 보았다.



새마을부녀회가 어떻게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구월4동새마을부녀회는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던 차에 구월4동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동사무소에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에 구비돼 있어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 시작했어요. 현재는 화요일과 수요일엔 밥을 금요일엔 국수를 대접하고 있어요."라고 답한다.

새마을부녀회장

오늘은 동짓날이라 어르신들께 한해의 나쁜기운을 떨쳐버리고 건강하시라고 팔죽을 준비한 새마을부녀회원들. 밥이 아닌 죽이라 돌아서면 금방 허기를 느끼실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인걸 아셨는지 두그릇씩 비우시며 배불리 잘 먹었다고



말씀하시며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녀들이다.



맛있게 두그릇 똑딱 비우신 한 할머니께서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쩔 이렇게 고마울수가. 잘먹고
가요."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이른시간부터 부지런히 일하느라 펴지못
했던
허리 한번 펴고 활짝 웃는다. 이런 말씀 한번 들으면 봉사하는
게 신
이나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주3회 중 2회는 밥을 대신하지만 나머지 한번은 국수를 대접해야
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부녀회원들은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이들
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구월4동 새마을부녀회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2006춘계체육대회



2006년 10월 27일 오후2시

2006 춘계체육대회 2006년 10월 27일 오후 2시 인천발전연구원 앞 운동장에서는 추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스트레칭강사의 지도하에 전신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직원들의 발야구에 이어~ 축구경기 시작!!! 열심히 뛰는 선수들 그동안 갖고 뒀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주었습니다. 체육대회의 가장 큰 묘미~! 릴레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린 ID직원들. 승패에 상관없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뛰고 웃고 땀 흘렸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2006년 11월 2일 오후2시

제5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인천발전연구원이 매년 한중일 3개국의 도시발전전략을 비교, 상호학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주최하는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이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06년 11월 2일 파라 다이소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시정발전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분야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운송시장

의 최신동향과 장래 전망을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청도사회과학원 연구교류



2006년 11월6일~9일

2006년도 인천발전연구원-청도사회과학원 연구교류 200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 청도사회과학원 연구교류를 위해 김창섭 원장님의 5명이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천-청도)의 경제무역협력과 문화교류가 보다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이에 성장속도가 빠른 양국 두 도시의 현대 물류업의 발전태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2회 한-중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 기타큐슈도시협회 연구교류



2006년 11월 8일 ~ 11일

인천발전연구원 - 일본기타큐슈도시협회 연구교류 2006년 11월 8일~11일 3박4일 일정으로 원장님외4명이 일본 기타큐슈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매년 기타큐슈도시협회와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 및 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교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이번 연구교류는 '사람들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집객도시만들기'란 주제로 인천발전연구원(조

상운박사, 신성희박사)과 기타큐슈도시협회(이토박사,우찌다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간의 우호를 촉진하고 학술 및 문화의 교류를 통한 연구성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지 정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6년 11월 30일 오후 2시30분

「인천광역시 주거지 정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6년 11월 30일 인천발전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지 정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방식, 2006년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외사례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그에 관한 토론을 하여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실현수단과 제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의 개발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및 정책방향을 제

안하였습니다.

2006여성정책워크숍



2006년 12월 8일 오후3시

2006여성정책워크숍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서는 "양육지원정책의 '선택권'과 딜레마 : 스웨덴 사례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양육지원정책의 확대는 자녀양육이 더 이상 여

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성정책워크숍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양육지원정책의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

시/정/연/구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여성개발센터 박혜경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1%로 1985년의 41.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인천은 47.1%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뒤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력단절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 등 돌봄노동(care work)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취업지원정책은 여성정책에서 핵심 영역이다. 여성 취업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인천 거주 여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 30-40대 연령층 집중 표집, 심층 분석을 위하여 10명의 여성 면접 조사).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직업을 가진 적이 있는 여성은 79.4%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단절 기간은 평균 5년 9개월이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을 물었을 때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40대와 50대 연령집단에서는 구조조정 및 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경우가 각각 19.8%, 18.1%로 나타났다. 고연령집단의 여성들이 불안정한 직장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우가 절반을 넘는 반면(그 비율은 감소 추세), 2000년 이후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한 퇴직이 가장 많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사유가 17.3%로 크게 증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취업의사는 73.6%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들 중 1년 이내에 구직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6.7%와 52.5%로 높았다. 하지만 육아 책임 등으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나 면접조사에서 취업 장애 요인으로서는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 능력 부족, 자신감 상실, 야간 근무 및 낮은 임금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나이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 나이가 들면 자녀 양육 노동의 필요는 줄어들지만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거나 부모가 병이 나서 새로운 돌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취업 중단을 초래하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 임금노동을 원하는 경우가 창업의 두 배 정도였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로 보면 음식점이 23.8%, 부동산 중개업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각각 10.7%였다. 임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원 등 서비스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공장근로자나 숙련공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8%로 낮았다. 이는 인천여성 근로자의 22.4%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근무조건으로 전일제를 원하는 여성이 60.8%이고 시간제는 39.2%였다.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를 원하는 여성이 34.0%였다. 출근하는 일수는 적고 출근하는 날 긴 시간 노동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기대수입은 100~150만원이 가장 많아 37.5%이고, 200만원 이상도 22.72%였다. 기대수입은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취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 다음이 안정성이었다. 향후 취업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기 원한다는 여성들이 64.7%로, 정년까지 일하겠다는 응답률 10.8%보다 많았다.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74.9%이고, 그 중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23.4%로 나타나 기혼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실감케 한다.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경향은 남편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질적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상황이 부인 스스로의 자각지심과 부부간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17.0%가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취업알선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많이 지적되었다. 원하는 보육서비스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88.8%로 가장 많았다.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5점 척도로 묻은 결과 “가족의 가사노동분담”이 4.18로, 기술훈련 4.19에 필적하였다.

여성 취업지원정책 대부분이 기혼여성의 재취업지원정책이지만,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전업주부 재취업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인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취업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 하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반드시 여성이나 주부를 명시하지 않지만 재취업지원 사업에 여성 수혜자는 많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돌봄 노동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 여성 참여율이 높다. 인천의 경우 2006년 총 246명 참여자 중 여성은 200명이다. 연령별로는 30세에서 54세의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부정적 측면은 비정규직의 양산인데, 수익형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일자리 자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저학력자가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회계층간 형평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다.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이 대개 저학력의 중고령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 공급 현황에 비추어 적절하지만 인재 활용을 통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고학력 여성의 낮은 노동력 공급 수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시장 판매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자기 계발과 직업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인 창업보다는 협동 창업 방식도 바람직하다.

가족원간의 가사분담 등 가족생활의 변화도 여성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천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2005년 현재 23개교에서 2007년부터 50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 자체가 취업 기회의 틈새이기도 하다. 2005년 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53개소로 전체의 약 4%에 불과하다. 모든 보육시설을 합쳐 분담율을 보면 26.2%이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분담율이 낮아 저연령 아동을 둔 어머니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해 준다. 공보육의 확대가 바람직하나,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인천지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은 것은 제조업 분야 비중이 여전히 큰 산업구조와도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3차 산업의 확대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연계되어 여성 취업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의 질 자체는 또 다른 과제이다. 여성의 노동력 공급 특성은 탄력적이라는 것이므로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퇴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방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인/천/나/들/이

변화하는 교육과 휴식의 場, 수도권매립지

환경생태연구실 윤하연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수도권매립지 생각만 해도 냄새나고 지저분한 매립지가 인천에 있다. 그것도 620만평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립지이다. 처음 매립지가 조성될 때만 해도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서북부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갯벌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청라자유구역, 김포·검단 신도시로 3면이 둘러 쌓인 인천의 요지에 수도권매립지는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매립지의 운영형태는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나 늪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묻고 매립이 끝나면 또 다른 매립지를 찾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로인하여 쓰레기 매립지는 비위생적인 환경시설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으로 우리나라의 매립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조잔디축구장

활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그 조성 초기단계부터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금도 매립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운영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저분함과 악취의 대명사였던 매립지가 지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장이자 휴식공간으로

토요일업일 아이들과 함께 교육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신다면 수도권매립지의 견학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매립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외 초등학교 이상 학생 및 단체 또는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견학일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봄학기 그윽한 양묘온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일 2회 실시하고있다. 견학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다.

견학프로그램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14:00~14:10)	수도권매립지 도착 및 홍보관 입실	홍보관
10:10~10:40(14:10~14:40)	일정안내 및 홍보비디오 시청	홍보관
10:40~11:30(14:40~15:30)	매립현장 견학 <제1매립장→침출수처리장→제2매립장→유리온실 등>	매립현장

※ 단, **토요일은 오전 10시, 오후 1시**로 변경하여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는 개인견학(개별 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현재, 매립지를 견학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매립지 어디를 가도 쓰레기를 보거나 악취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매립지로 운반되는 쓰레기는 현장에 버려진 즉시 흙으로 덮여지고 있어 여간 운이 좋지(?) 않으면 쓰레기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공원내 산책로

오전에 매립시설을 견학하셨다면 오후에는 매립지내의 체육시설에서 아이들과의 축구시합이나 나무숲 사이로의 산책이 가능하다. 매립지내에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산책로, 지압보드, 분수대 및 연못 등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 06:00~19:00까지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축구장의 경우에는 7~14일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

나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여 2~3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가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 필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면 더욱 뜻 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	규격/수량	이용시간	비고
축구장	천연잔디 1면 (외곽 인라인스테이트 트랙)	사전 예약 ※1회 2시간 사용제한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테니스장	2면	6시~19시	사전 접수 필요 없음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휴게시설	산책로, 지압보드, 분수대 및 연못		
부대시설	간이샤워장, 단상, 파고라 및 체력단련시설		

체육시설 이외에도 매년 계절별로 **야생식물전시회**, **국화축제**, **썰매축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행사기간에 맞춘다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



시/정/연구

고령화사회에서의 여성, 고령자 인력활용

시정연구관실 임선자 연구관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05)발표에 의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15%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된다.

이같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며,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예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이며,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율은 노동력의 확대라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의존도, 즉 고령인구부양비를 감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한다.

□ 현황 및 고령화의 영향

1) 현황

<표 2>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 국제비교

국명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증가소요연수	
				7→14%	14→20%
한 국	2000	2017	2026	17	9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중 국	2001	2026	2036	25	10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5). 『人口統計資料集(2005年版)』.

[그림 2] 인천시의 장래인구 전망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05. 4).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05)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15 ~ 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2015년 정점(75.5)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2030년에는 64.7%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985년 2.9%였으나 2005년 10.0%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2010년 8.5%로 다소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무려 23.9%에 이를 전망이다.
- 반면 유소년인구(14세 이하)의 비중은 1985년 30.1%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20.3%, 2030년에는 11.4%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05년 기준 인천시 관내 여성경제활동참가율(1주 기준)은 전국 50.0%보다 3.1%p 낮은 46.9%로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로 1997년 49.4%로 8위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10위권에 머물고 있음.

<표2> 성별 ·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	천명	%	천명	%
전국	여	19,549	51.4	9,427	41.0	10,122	67.5
서울	여	4,144	51.4	2,121	41.8	2,023	67.7
부산	여	1,513	52.1	706	42.1	807	65.8
대구	여	1,039	51.7	515	42.6	524	65.6
인천	여	1,029	50.7	477	39.1	552	68.1
광주	여	570	52.0	274	43.1	296	64.2
대전	여	586	51.2	265	40.3	321	65.8
울산	여	415	49.9	176	34.9	239	72.9
경기	여	4,202	50.8	1,961	38.9	2,241	69.3

* 자료 : 통계청(2005.2), 시도별 성별 15세 이상 인구 · 경제/비경제활동인구.
(지면상 여성만비교)

2) 고령화의 영향

-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 들고 이를 상쇄 할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둔화 초래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 : 8.2명('05년) → 4.6명('20) → 1.4('50)
-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 부담 초래
노인의료비(조원) 증가 추이 : 3.7 ('02) → 4.4 ('03) → 5.1 ('04)

□ 여성 및 고령자 인력활용 정책 (중앙정부)

- 1) 여성 고용정책은 「남녀고용평등법」의 틀 속에서 고용차별해소 정책,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한 여성고용지원 확대정책,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으로 발전해 옴.

2006.7월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60만 개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함.

- 2) 고령자 고용정책은 1992년 고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갖도록 지원, 촉진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시행으로 시작됨.

※ 이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준고령자는 50~55세로 정의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봄.

-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정책으로는,
- 300인 이상 기업은 상시 고용 고령자의 비율을 3% 이상 고용 권고 및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우선고용직종(160개)에 대한 신규채용과 결원 보충 시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 고령자를 다수 고용, 신규 고용,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

려금'지원.

□ 정책제언 및 결론

- 1) 여성인력 활용 측면에서

-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하여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업상담기능을 두어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유도.
- 또한 노동시장수요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물론 야간, 주말과정 및 단기, 단시간 등의 훈련과정 확대 필요.
- 성별분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성친화적 직종(예, 건설, 전기, 조경, 기계장비 등) 훈련

련

과정의 확대 개설 및 일정 여성의 의무적 참여 방안 검토.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06.9.20)에 따라 방과후프로그램, 간병수발, 영·유아

보

육, 장애인 보호 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우려되어 여성과 고령자의 참여 확대를 모색 중.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유망직종 훈련과정을 관내 전문대학, 대학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확대 개설.

- 2) 고령자 활용 측면에서

- 우선 고용촉진 대상으로서의 고령자 연령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기존의 노인복지관련 정책과 분리된 고유정책의 개발 추진.
- 정부정책의 수혜대상이라는 인식(복지적 접근)에서 고용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노동시장적 접근)으로의 분위기 전환 필요.
- 고령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의 단축, 시

간

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형태별 시범사업 실시 검토 및 다양한 자문 지원.

- 관내 기업대표들과의 정례 회동시 '정년후 다년 고용계약체결'에 따른 혜택 적극 홍보.
-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NGO), 중소기업 등에 일정기간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3)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로, 여성과 고령자의 인력활용문제는 담당부서의 확대나 전담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나, 통합적으로 지역고용문제를 논의하는 '지방고용심의회'의 활성화를 꾀하되, 여러 측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역리더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젊은층과 고령층이 고령화사회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와 문화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성, 연령을 초월한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추진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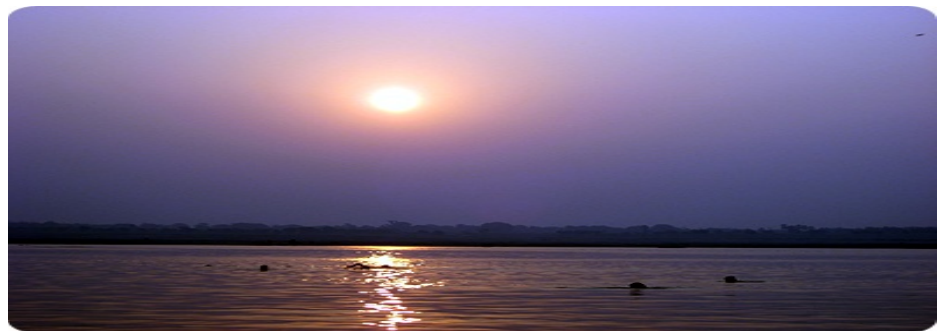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신이된 강, 갠지스



갠지스강을 찾아가는 길은 어두운 새벽이었다.

소똥, 개똥, 사람똥을 피해가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 갠지스로 가는 길은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뚫고 갠지스강가로 나아간다.

갠지스강은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유티주와 비하르주를 거쳐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큰 강이다.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바라나시에서 그 물줄기가 시바신이 살고있는 북쪽의 히말라야를 향하였다 다시 남쪽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이 곳에 모여 자신의 까르마(업)를 씻어 내어 삼사라(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가)는 단순한 강이 아니다. 비슈누의 아내였으며, 후에 시바의 아내가 된 여신이다. 그 여신의 품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까르마(업)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갠지스강가에는 사람들이 많다. 갯트에 앉아 명상에 빠진 사람들, 강물에 들어가 온몸에 물을 뿌리고 씻어내는 사람들,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들, 죽은 자를 위하여 화장을 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건너편 강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희미했던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빛을 찾은 갠지스는 차분해진다. 빨래감을 내리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분주해보이지 않는다.

갠지스강 갯트의 모습을 보기위해 관광용 배에 오른다. 삿대로 움직이는 배다. 배는 갠지스를 찾은 많은 사람들 앞을 지나친다. 우리에게겐 화장터에서 죽은 이를 태우는 것조차 구경거리이다. 내가 탄 배 옆으로 꽃으로 장식된 초를 파는 어린아이가 다가온다. 그 초를 사 불을 붙여 갠지스에 띄운다. 여명이 낮게 드리운 갠지스에는 작은 촛불이 떠 다닌다. 내 영혼도 떠 다닌다.

죽은 이들이 갠지스 강가의 화장터로 몰려 든다. 까르마(업)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화장터 주변을 어슬렁 거리며 죽은 이를 태우는 것을 본다. 발바닥에 빨간 칠을 해 놓은 발목이 불 타고 있는 나뭇단 밖에 있다. 화장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땀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땀감 1Kg의 있고 없음이라지만 죽은 후에도 자기 몸조차 다 태울 수 없는 가난함이 서글프다.

죽은 소가 떠 내려간다. 화장터에서 타고 있는 죽은 이들도 재만 남으면 재로, 다 타지 못하면 못한 대로 갠지스 강 품속에서 삼사라(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길 바라며 떠 내려간다. 그 옆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면서 까르마(업)를 씻어낸다. 나도 갠지스강물에 손을 담근다. 죽은 자의 존재가 낯설지 않은 곳, 갠지스에선 그렇게 삶과 죽음이 함께 살고 있었다.

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인도는 신의 나라라 할 만하다. 모든 국민이 힌두교 또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믿는 힌두교는 다신교다. 창조의 신 브라흐마, 파괴의 신 시바, 보호의 신 비슈누, 행운의 신 가네샤, 건달의 어원이 된 하늘에 사는 음악의 요정 간다르바, 이름을 가진 신들이 수천에 이르고, 이 모두를 인도인들은 숭배한다. 신들 중에는 현재 살아있는 신도 있다. 네팔의 옛 왕궁이 있는 카투만두의 더르발 광장 남쪽에는 쿠마리 바할이 있다. 오래된 3층 목조건물에는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가 살고 있다. 쿠마리는 탈레주 여신의 분신이다. 인간의 몸을 빌어 아름다운 여인으로 출현한 탈레주를 범하려한 카투만두 왕의 욕정으로 인해 여신은 초경이 지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섬길 것을 명하였다. 이 아이가 쿠마리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힌두교를 믿는 네팔인들은 시바신의 주거지인 히말라야에 살고 있어서인지 인도인들보다 더 종교적이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신들을 위해 공간을 나눠 주고 있다. 길거리의 소는 숭배의 대상이며, 이 소들을 위해 쓰레기는 거리에 그냥 버려진다. 길을 걷고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친다. 돌아다보니 흰 소가 나를 쳐다보며 비키라는 듯 하다. 잠깐 본 소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올드바자르를 지나 쿠마리를 만나러 가는 길은 북새통이다. 쿠마리를 만나러 가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려는 현지인들로 인해 발걸음조차 옮기기 쉽지 않다. 쿠마리 여신이 사는 집인 쿠마리가할에 들어 갔다. 여신은 집 안에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 여신이 마음이 내켜야 모습을 보인단다. 꼭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는데 쿠마리가 오래된 목조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얼굴을 보인다. 짙은 화장에 3지안을 그린 어린 아이는 1분도 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살아진다. 쿠마리가 사라진 창문을 향해 진심어린 고마움의 기도를 한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네팔은 가난하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물론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찾는 곳마다 나를 둘러싸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면서, 누군가에 의해 잘린 것처럼 보이는 한쪽 팔이 없는 아이의 내민 손을 보면서 동정심으로 슬픈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난다. 인도인, 네팔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신에게 경배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신이 한돌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경배하는 그 많은 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많은 아이들이 가난속에서 학대받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경배받고 있는 훌륭한 신들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살아있는 신 쿠마리에 대해 네팔 대법원이 인권침해가 없는지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분명 5-7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하여 초경이 있기 전까지 신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현대인의 눈에선 인권침해일 수 있다. 쿠마리의 사진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10살난 내 딸의 얼굴이 떠올랐으니 분명 그 어린 아이의 인권에 대해 검토해볼 일이다. 그러나 10살짜리 살아있는 여신은 분명 자신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을 만들어 주는 현실적인 신이다. 수 많은 힌두의 신 중에서 한 돌이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사는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나 쿠마리가 없는 올드바자르는 급격히 쇠락해 갈 것이다. 어느 정도 관광객이 모여야 얼굴을 내미는 쿠마리의 상술 보다는 여신으로 인해 먹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어린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덧붙임) 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我當安之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인도와 네팔은 인간에 대한 희망과 슬픔의 반복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해탈을 위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도인들의 수행자적 생활속에서 본 희망과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삼사라(윤회)의 틀 속에서 현재의 삶을 받아 들이며 살아가는 종교적 무기력에서 본 슬픔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해탈을 위해 갠지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도 민중의 삶도 둘이 아니다.

신간/소개

평생 학습과 지역사회교육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최근 일본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평생 학습에 대한 의미를 지역사회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번역하여 출판한 책. 이 책은 평생 학습에 있어서 사회교육의 새로운 과제의 가능성을 밝히고, 평생 학습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평생 학습에 대한 개념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대 청년의 자립, 성인여성과 교육, 장애인과 고령자와 연관되는 복지마을 만들기, 어린이의 방과 후 교육 등 사회가 교육과 연관 지어 관심가질 수 있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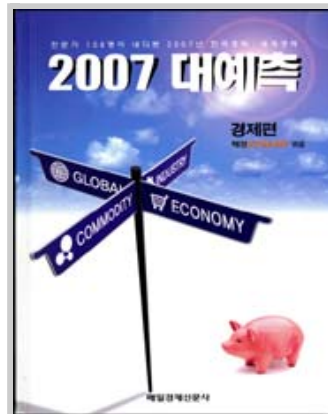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6년 1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2007 대예측 - 경제편



매경ECONOMY

매년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보는 매경ECONOMY의 기획 단행본. 다가오는 2007년을 앞두고 경제 관련 전문가 108명이 한국경제, 국내 산업, 세계경제, 국제원자재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각 아티클을 기고하였다. 국내산업 파트의 경우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의 한국 5대 그룹의 2007년 준비 현황을 서두에 기술하였고, 유통부분에서는 백화점, 할인점에 네트워크마케팅과 홈쇼핑, 프랜차이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중국 칭다오 벤치마킹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인 칭다오(靑島)를 개관하고 해양축제 산업을 벤치마킹한 보고서. 칭다오는 중국 내에서도 해양관련 항만산업, 해양스포츠 및 관광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부산-칭다오간의 연구협력 분야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시행된 연구. 칭다오를 경제산업, 해양항만, 도시개발, 환경분야 등 4개분야로 나누어 현황을 조사하고, 부산-칭다오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후반부는 칭다오 해양 축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를 수록하였다.